67년 전통 '예술꿈나무 등용문'

호남예술제 막 올랐다

27일 오후 광주시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67회 호남예술제 발레(클래식)부문에 참가한 고서희(문우초 6)양이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월 31일까지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만화 부문

합창·합주, 경연 취소…미술·작문은 공모전으로 전환

올해로 67회를 맞은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 호남예술제가 막을 올렸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가 지역 예술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간 4년 째를 맞은 1956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호남예술제는 광주·전남 뿐 아니라 명실상부 전국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제로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다.

이날 개막한 제67회 호남예술제는 5월 31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호남신학대학교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합창·합주 등 대규모 단체 부문의 경연은 취소됐으며, 미술·작문·만화애니메이션 등 부문은 공모전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이번 경연은 음악(성악·기악·앙상블), 무용(클래식 발레·창작 발레·현대무용·실용무용 등), 국악(기악·성악·가야금·타악 등),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운문(시)), 만화애니메이션(칸만화·일러스트레이션)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미술(회화·한국화)·작문(산문·운문), 만화애니메이션(칸만화·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은 오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작품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미취학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새싹 그리기 축제'도 오는 7월 1~7일 그림을 접수받는다.

부문별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에 당일 날 공지하며 다음날 발행되는 광주일보 지면(문화면)에도 발표한다.

그동안 참여 인원만 58만 명에 이르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이들의 꿈을 키워준 텃밭이었다. 각 부문 수상자들은 현재 문화계에서 아티스트로, 교육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김남윤 한예종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바이올린),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 강연균 화백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호남예술제를 거쳤다. 특히 의재 허백련, 오지호, 시인 김현승, 무용가 옥파일 등 유명 예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예술제의 위상을 높였다.

교육자로는 강숙자·정애련·박계·조수현·길애령·김진숙·김혜경·서영화·박행숙씨 등이 대표적이다.

무용 부문에서는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웠다. 초·중·고 시절 5차례 최고상을 수상했던 김 교수는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입상한 한성우 등 수십 명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또 무용계 출신으로는 뉴욕 '덤보댄스페스티벌'을 열고 있는 현대 무용가 김영순과 서차영·김화례·김화숙·김미숙·임지형·박준희·정희자·박선욱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화가 강영균·최영훈, 시인 고재종·양성우 등도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문의 062-220-0541.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67회 호남예술제 발레 입상자

〈심사위원〉
이영애(전, 무용협회 광주지회장)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 클래식 독무 초등부 1,2학년
▲ 금상
2 박선우(유촌초2)

◇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 금상
5 장서우(광주광천초4)
6 기은서(문우초4)
▲ 은상
8 김나현(유안초4)
▲ 동상
1 명효담(문산초4)
3 양정윤(광림초4)

◇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 금상
3 최윤지(태봉초5)
▲ 은상
4 김수현(본촌초6)
▲ 동상
2 김태연(광주광천초6)
8 조민교(광주광천초6)
12 고서희(문우초6)

◇ 클래식 독무 중등부 1,2학년
▲ 최고상
7 백다원(광주북성중2)
▲ 금상
5 김태은(무진중1)
6 송민찬(북성중2)
▲ 은상
8 안진원(산정중2)

◇ 클래식 독무 중등부 3학년
▲ 은상
1 서성민(우산중3)
▲ 동상
2 윤서린(비아중3)

◇ 클래식 군무 초중연합
▲ 금상
1 최수아 외 6명(초중연합)

◇ 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
▲ 금상
1 이승빈(양지초2)
▲ 동상
5 이루다(태봉초2)

◇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 은상
4 김세아(조봉초3)
5 박채원(광주송원초3)
6 정초원(문우초4)
▲ 동상
1 부트리아(광주광천초3)

◇ 창작 독무 중등부 1,2학년
▲ 동상
1 남윤주(봉산중2)

◇ 창작 독무 초등부
▲ 최고상
3 장지우 외 16명(광주송원초2~6)
▲ 은상
2 박재이 외 6명(살레시오초3~6)
▲ 동상
1 임하경 외 5명(살레시오초3~4)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비움박물관 '꽃이 된 광주사람들' 전

5월 3일~31일 '5·18 특별'전 무료관람…18일 주먹밥 체험

수 만점의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는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광주시 동구 제봉로 143-1)은 매년 5월이면 '오월 광주'를 기억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연다. 지난해에는 오월의 등불과 주먹밥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 주걱 200점과 호롱불을 함께 전시했다. 그 전해에는 민중들의 일용할 양식을 담는 '밥사발'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꽃으로 여겼던 '목단꽃'이 담긴 민속품을 전시한다. 특히 오월 전시 기간 동안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비움박물관이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꽃이 된 광주사람들'전을 개최한다. 주요 전시품은 도자기에 새겨진 목단 꽃, 비단에 수놓은 목단꽃이다. 목단꽃은 복된 꽃이다. 그 복된 꽃이 광주사람들이 돼 이제는 오월의 정신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또 5·18 나눔행사를 진행, 5·18을 기억하고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18일(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나눔행사 '오월, 그날의 기억 그날의 주먹밥을 추억하며' 행사를 갖는다. 행사 참여자의 주먹밥은 체험 후 종이 용기에 포장, 400개 한정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한편 지난 2016년 문을 연 비움박물관은 이영화 관장이 50년 동안 모아온 민속품이 전시된 공간이다. '개방형 수장고'를 컨셉으로 한 박물관에 소장된 민속품은 3만여점에 달한다.

이영화 관장은 " 5월18일은 세계박물관의 날이기도 하다. 비움박물관은 사회적 역할을 고민해왔고 수 만점의 유물을 통해 그 유물이 머금고 있는 문화의 정신 줄을 이으려 한다"며 "광주 민중항쟁과 5월 주먹밥정신은 이미 세계적인 기록유산이 됐고 평화의 밥꽃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비움박물관에서 열리는 '꽃이 된 광주사람들'전에서는 목단꽃을 주제로 한 민속품을 만날 수 있다.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

30일 해동문화예술촌…권하경·김병태 무대

권하경

김병태

담양 해동문화예술촌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앙코르 해동'(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운영중이다.

오는 30일 오후 5시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리는 4월 행사는 판소리를 감상하는 시간이다.

'판소리 듣음 청 :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는 담양 출신 박동실 명창의 소리를 접하는 귀한 자리다. 이번에 공연하는 '심청가'는 현존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가장 비극성이 강조된 소리로 서편제 박동실제 심청가는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작품이다.

김형일(전통문화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권하경 박동실제 보존회 회장이 소리를 들려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권 명창은 박동실제 심청가와 창작 판소리 이준·안중근·윤봉길·유관순열사가를 완창했으며 현재 담양소리전수관 관장을 맡고 있다.

박동실제 판소리 보존회는 '심청가'와 '의사·열사가'를 전승계승하고 있는 단체다.

고수 김병태(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고법 이수자)가 함께 무대를 준비한다.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손 안대고 '컵' 옮기기…'슬랙라인' 위 패션쇼

5가지 일상을 서커스로 '해피해프닝' 공연, 5월1일 광주문예회관

"컵 옮기기, 옷 갈아입기, 빛과 그림자."

일상의 소재를 서커스로 표현하는 '해피해프닝'〈사진〉이 5월 1일 오후 3시와 6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해피해프닝은 일상 속 서커스라는 주제로 일상 속 소재에서 파생된 감각들을 서커스로 표현한다.

공연은 명확한 서사와 스토리라인을 부여하지 않고 신체적인 감각과 그 순간 발생하는 소통의 요소를 사용, 관객들의 상상을 통해 완성된다.

이번 공연에는 5가지 일상 소재가 몸으로 표현된다. '컵'은 손을 제외한 신체를 활용해 컵은 옮긴다. '슬랙라인'은 아슬아슬한 슬랙라인 위에서 유쾌한 패션쇼가 펼쳐지며 이밖에 파도소리와 체인의 만남 '에어리얼체인', 기둥을 세우는 모습을 표현한 '차이니스폴', 빛과 그림자 '에어리얼실크' 등을 몸으로 표현한다.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즉흥적 상황과 이미지는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해피해프닝은 2022 아시테지겨울출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가족, 친구, 연인 등 남녀노소 다양한 관객들이 즐길 수 있다.

전석 2만원.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CC 미디어월·에스컬레이터 전시

영상·음향 작품, 5월 16일까지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미디어월과 옥외형 에스컬레이터에 전시할 영상·음향 작품을 오는 5월 16일까지 공모한다. ACC는 모두 5작품을 선정해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우수 작가를 발굴하고 공공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는 '벽 너머의 공간(Behind the Wall)'. 문화전당 미디어월 엘이디화면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 듯한 표현 및 효과로 확장현실을 표현한 작품이면 된다.

지난해 하늘마당 입구에 설치한 에스컬레이터는 4개 화면으로 둘러싸인 상부 구조물과 지붕을 활용한 27M 엘이디 화면이 특징이다. 28개의 음향장비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까지 더해져 무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끌어낸다.

아시아문화광장 대형 미디어월을 위한 작품 3편엔 각각 2000만원, 하늘광장 에스컬레이터에 구축할 작품 2편엔 각각 30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 29일부터 전시할 계획이이며 응모 희망자는 ACC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 받은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raee@korea.kr)하면 된다. 문의 062-601-4423. ACC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